

진도~제주간 송전 철폐 반대 확산

진도 지역주민들 서명운동 돌입 지경부·한전 본사에 건의서도

진도~제주간 송전 철폐 건설을 반대하는 진도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구성된 '진도~제주간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반대 진도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지역내 사회단체와 함께 송전선로 건설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직류연계건설소장, 광주전력관리처장에게 진도 군민 8천312명이 서명한 송전 철폐 건설 반대 건의서를 보냈다.

대책위는 건의서를 통해 ▲제주도 내 LNG 발전소 건립과 해저 케이블 사업 취소 ▲제주도와 가까운 인근 지역보다도 거리가 먼 진도군을 경계지로 선정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송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연수 진도군수와 조규탁 진도군의회 의장 등 의원 5명도 지난 3일 지식경제부와 한전 본사, 광주전력관리처를 방문해 송전선로 건설 계획 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철폐가 세워지면 천혜의 자연경관 파괴와 함께 미관이 크게 훼손되는 등 진도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송전탑 설치 계획 철폐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연수 진도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3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해 진도~제주간 송전선로 건설계획 취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해남변전소에서 제주시까지 100km 구간의 해저에 매설된 송전선로가 한달에 한 번꼴로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새로운 선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진도 군내 변전소~수유~지산 영무~임회 연동~봉상 구간 20km에 철폐 80여기를 설치해 진도군을 통과한 후 해저 케이블로 제주도에 송전할 계획이다.

진도=박현경기자 hypark@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DB화

국비 등 21억 투입...내년 1월 완성

담양군이 국가지식정보자원 과제에 선정된 '한국가사문학 DB(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담양군은 최근 우선 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라이테크시스템과 계약하고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가사문학 관련 자료의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등에 대한 DB화를 마쳐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비 5억8천만원, 군비 9천만원을 들여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된 가사원문과 해제본 5만여 점을 비롯, 원문 이미지 및 유물자료 3만4천여 점, 155분 분량 멀티미디어 자료와 30분 분량 음성 자료 등이 DB화된다.

군은 2010년까지 21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DB가 구축되면 한국 가사문학이 디지털 시대 국문학과 역사학,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민족문화를 보존·계승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국가지식정보자원 과제 공모에 선정된 담양군은 양녕대군 증손자인 이사의 '낙지가'를 비롯해 송순의 '면암정가', 정철의 '성산별곡', '사미인곡' 등 대표적 가사문학 18편이 집필돼 전해오고 있는 가사문학의 산실이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

농촌공 전남본부 친환경 분임조

품질 경진대회 금상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봉조)와 영암지사 친환경 연합 분임조(분임조장 박종호)가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08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했다.

또 장흥지사 친환경분임조(분임조장 이재근)도 '연약지반 토목구조물 공사기간 단축으로 비용절감'이라는 주제발표로 동상을 수상했다.

전남지역본부 친환경분임조는 이번 대회에서 친 환경적인 용·배수로 시공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기동기자 song@

담양군 추석기간

관광지 무료 개방

담양군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외지인 등 모든 관광객들에게 주요 관광지를 무료 개방한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남도 웰빙관광 1번지로 부상한 죽녹원을 비롯해 대나무박물관, 가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 등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관광지에 대해 추석날 하루 동안 무료로 개방하고 주차료도 전액 면제한다.

또 기간에 위탁운영중인 소재원과 금성산성도 무료로 개방된다. 담양군은 무료 개방에도 관광객들에 대한 안내와 편의제공을 위해 근무자를 배치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

영광 백수해안도로에 '노을 전시관'



'한국의 아름다운 길' 9위에 꼽힌 영광 백수해안도로에 아름다운 낙조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노을 전시관'이 오는 15일 문을 연다. (영광군 제공)

광산구 26일부터 어등축제

제 2회 어등축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6일간 송산근린공원 등 광산구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식전행사, 기념식, 식후행사, 화합행사,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20여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rklee@

/ 새 얼굴 /

"인성교육 활성화 孝敬교육에 전력"

장애 신 곡성 교육장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고 싶습니다." 최근 취임한 장애인(여·56) 곡성교육장은 "학교 교육의 핵심은 '인성교육'과 '학력향상'이며 특히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곡성의 미풍양속인 효경(孝敬)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천 출신인 장 교육장은 전남대 가정교육과를 졸업한 뒤 교직에 입문, 주로 여수에서 근무했으며 여수여고 교장과 여수교육청 교육과장을 지냈다. /곡성=정필수기자 bungy@



김 양식장 무기산 공급 엄벌

적발 땀 유기산 공급사업 면허 취소

앞으로 김양식장 어업인에게 불법 무기산을 공급하다 적발될 경우 유기산 공급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전남도는 9일 김양식장 산처리제

(유기산) 사용지침을 개정, 어업인에게 불법 무기산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유기산 공급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재면허도 불허할 방침이다.

전남도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최근 '김어장 산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김 양식장 업체가 불법 무기산을 어업인에게 공급할 경우 정부 사업에 서완전히 배제된다.

기준에는 불법 무기산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사법처분만 가능하고 행정제재를 내릴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무기산 근절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불법 무기산을 사용하는 김 양식 어장도 2차례 적발될 경우 어업면허가 취소된다.

친환경 김 양식을 위해 장흥군을 전국 최초로 친환경 시범 김 양식지구로 지정한 전남도는 신안과 무안에서도 친환경 김 양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투자유치 활성화 모델 만들자"

함평군 투자유치 총력 다짐 결의대회 개최

함평군이 9일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투자유치 총력 다짐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석형 군수를 비롯한 함평군 공무원과 9개 읍·면 기업유치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투자유치 상황보고, 결의문 낭독,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석형 군수는 특강을 통해 "함평은 발달된 교통여건으로 투자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만큼 공무원과 주민들이 성숙한 주인 의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주·전남공공국가산단 유치, 쌀 가공업체 완료(대선

제분), 인조잔디 제조공장 건립(성웅), 학교농공단지 입주(보화산업, 대원사료, 다미찬) 등 향후 투자유치 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2003년부터 6년간 8천114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20여건의 투자가 성사됐다.

특히 (주)캔텍, (주)세한, 함평다이너스티CC, (주)에스앤씨 등 23개사가 3천274억원을 투자해 현재 정상조업중이거나 공사가 진행중이다.

또 광주·전남공공국가산단 유치로 광산업과 자동차부품, 디지털정보기전, 신소재 관련 업체가 함평군에 들어설 전망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추석 산타 원정대' 뒤편

나주 종합사회복지관, 소년소녀 가장 돕기 이색 행사

나주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선규)이 추석을 앞두고 관내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이색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나주 종합사회복지관은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과 함께 소외계층을 돕는 '추석에도 산타를 보내자' 행사를 추진해 효사랑병원 및 영산강통제소, 전기안전공사 나주시지사, 한국부인회 나주시회 등이 참여한 '추석 산타원정대'를 조직했다.

'추석 산타원정대'는 각 기관의 후원단체와 봉사단체 회원들이 물품들을 예쁘게 포장해 직접 소

년소녀 가장 등에게 전달하게 된다.

'산타원정대'는 최근 80여 명의 나주지역 소외계층 등 빈곤가정 아동들에게 추석을 갖고 싶었던 선물을 제공하고 차례상에 필요한 제수용품 등을 전달했다.

산타원정대로 나선 봉황면 김진호씨는 "주위에 이렇게 뜻 깊은 의미 있는 행사가 있는지 몰랐더라"며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추석이 되지는 의미로 추진된 행사인 만큼 더욱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의 061-332-8991.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Large advertisement for 'Gigil' (기밀) featuring a group of people and text about a 'Big Mountain' (大山) projec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